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8월 14일(금)
...(음력 6월 25일)..
Пятница
14 августа 2020г.
№ 32 (11689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광복 75주년을 축하합니다!



▲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해마다 사할린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개최한다. 작년 광복절 기념행사의 한 장면.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명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반도의 광복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상관 없이 한국인들에게 이날은 가장 중요하고도 찬란한 명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는 여러분의 목표와 이상이 전과 같이 새로운 성취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거룩한 명절은 인간의 자유와 삶의 가치를 전 세계에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사할린에서도 명절로서 주 주민들에게 있어 문화적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전통적으로 8월 중순에 거행되는 한반도 광복 75주년 기념 행사 개최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으로 날짜를 좀더 나중으로 연기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후에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며 8월 15일에 계획되었던 모든 행사들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강건함과 번영과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От имен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от себя лично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ля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независимо где бы он не жил, это самый светлый и важный праздник.

В этот знаменательный день желаю, чтобы ваши стремления и идеалы, как и прежде, вели вас к новым успехам и достижениям, а этот священный праздник вновь напомнил всему миру о ценности свободы и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здник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тал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днако, реалии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не позволяют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радиционно в середине августа, опасн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 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заставляет перенести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Но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и вместе проведем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на 15 августа мероприятия.

Желаю счасть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процветания и мирного неба над головой!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푸틴 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등록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19 백신 등록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백신은 효과적이며 안정적으로 면역력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 백신이 등록되었다." 라고 정부 회의에서 밝혔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딸 중 한 명도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소식을 '코메르산트' 언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 백신은 충분히 효과적이며 안정적으로 면역력을 형성하고 반복해서 모든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벨릭토 바자로브,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국 국장으로 임명

8월 3일 러시아 연방 488호 대통령령으로 벨릭토 발도르주예비치 바자로브 법무 대령이 사할린 지부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국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바자로브는 1977년 부랴티아 공화국 예라브닌스키 지역 소스노보 오조르스코예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에 우랄주 국립 법학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그는 치타지역 검찰청, 자바이칼 지부 러시아 연방 검찰청 산하 수사위원회, 트와 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부터는 트웨리주의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국 부국장으로 근무했다.

안산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광복75주년 기념식 개최

"고향땅에서 맞이하는 광복 75주년 기념식"을 14일 오후 5시 경기도 안산시 <스마크> 레스토랑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은 지난 12년동안 끊임없이 사할린에서 대구의 밤을 개최 했고, 5년 전부터는 대구에서 <사할린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사할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광복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저녁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이 행사는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가 노인회(회장 주훈춘)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포로나이스키시, 외래 종양센터 열려

포로나이스키시에 외래 종양센터가 문을 열었다. 포로나이스키 구역 종양병원 소속의 이 센터는 <보건>국가 기획실행의 일환으로 종양환자들에게 화학 치료를 진행한다. 종양 치료는 지금까지 사할린주 종양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 센터에서 종양환자들은 알약 형태의 약 처방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다.

포로나이스키 외래 종양센터에는 현지 환자만 아니라, 마카로브·트몐스코예·스미르니흐·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우글레고르스크 구역 등의 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할 계획이다.

광복절 맞아

사할린 동포의 보통 삶의 이야기

2주 전에 코르사코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현지 한인회 박창순 부회장의 소개로 코르사코브에 사는 이병열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었다.

올해 90세를 맞으신 할머니가 가장 먼저 꺼낸 얘기는 1993년에 돌아가신 남편의 얘기였다. 1922년생인 남편 이종복 씨는 19세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비코브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병열 씨와는 그 당시 다들 그리하듯 중매로 만나 1948년에 혼인을 올렸다.

"일본 사람들이 모질게 끌고 온 양반이요. 부모 형제 다 내버리고 와서 편지 연락도 못했어요. 나중에 일본을 거쳐서 연락했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도 다 잃어버렸어요."라며 이병열 할머니는 한숨 쉬었다.

할머니 옆에 있던 둘째 딸 이순희 씨는 "한국에 계셨던 아버지의 부모님과 형님, 남동생, 여동생 모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열 할머니는 남편과 러·한 수교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 일본을 거쳐 한국의 고향에 가볼 수 있었고,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두 번 정도 한국을 다녀왔다.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아주 튼튼한 양반이었는데,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가니까, 부모님도 없고 형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해서 우리 고향에만 갔다 왔지, 정말로 친척은 있었지만 부모·형제 아무도 없어 통곡하고 오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그후 뭐랄까, 화병이 나서 그랬는지 갑자기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또 우리 애들이 모스크바 공부하러갔단 말이요."

당시 슬하의 두 딸은 의사로서 모스크바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차 떠나 있었다.

남편 이종복 씨는 편지를 통해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이병열 할머니는 지금도 남편의 부모님과 할아버님까지 제사를 지낸다면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종복 씨의 소원은 강제징용된 모든 사할린 동포들과 똑같았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길이 막혀가지고 못한 양반들의 산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형제 못 만나고 땅에 묻힌 양반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 건 말할 것이 없지."라고 이병열 할머니는 몇 번이나 반복해 말했다.

이병열 할머니는 남편을 항상 존경하며 사이좋게 지내면서 슬하에 자녀 6남매(1남5녀)를 키웠다. 할머니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애들은 다 잘 살아. 다 대학 나와서 의사질 하지... 다 좋아요. 살기는 좋지만 애(둘째 딸을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먼 데 간 것, 그것만... 어제도 꿈에 보이네... 여기서(코르사코브 한인회)도 회원으로 일했고 말도 잘했어. 일 많이 했어."라며 이병열 할머니는 회상하며 이야기했다.

남편 이종복 씨는 코르사코브 통조림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손재간이 아주 좋아서 한때 군복을 만드는 재봉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둘째 딸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영주귀국길이 열렸을 때 귀국하셨을 겁니다. 엄마도 같이 가셨을 텐데. 혼자서는 안 가신대요. 자식들이 여기 다 있으니 어떻게 혼자 가냐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한다.

충청북도 출신의 이병열 할머니는 어릴 적에 모집으로 사할린에 오신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들과 함께 오게 되었다. 젊어서부터 정년퇴직까지 코르사코브의 골판지 상자 공장에서 일했었고 밭농사도 했다.

이병열 할머니는 만 90세가 되었어도 판단력도 좋고, 몸의 운신도 자유로워 항상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한다. 할머니 맥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단이 찾아간 적이 있고, 훈련차 코르사코브를 방문한 한국 해양경찰단도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때 너무 반가워서 집에 있는 고사리를 모조리 다 주셨다며 먼 기억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해 말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소아과 의사인 막내딸과 함께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이 직장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다니다 보니 이제는 그곳으로 이사해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는다고 한다. 코르사코브에 사는 두 딸은 혼자 사는 어머니 맥을 매일 찾아오고, 음식을 챙겨주고 있다. 할머니가 사는 집은 큰 식구를 위해 1968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할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는 필자에 질문에

"나는 혈압이 좀 있어. 애들이 의사니 병원을 잘 안 간다... 매일 6시 일어나서 체조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안 좋다. 맥이 없고 힘없어... 청소, 음식은 딸들이 다 하지... 나는 밭에서 풀이나 뜯고... 감자, 토마토, 오이, 상추, 배추... 다 심어놨지... 아이들이 많잖아. 한인회 행사도 잘 다니고. 아플 때는 안 가고..."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에게는 자식 복이 있다. 딸 다섯(들은 코르사코브에, 셋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고, 외동 아들은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는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온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한 달 지내다 갔다고 했다.

사할린 1세 한인들의 일상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날마다 눈물지어도 고된 일 속에 눈물을 씻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었다. 이제 후손들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배순신 기자)

9월 1일, 사할린에 4개의 새로운 학교 개학

9월에 4개 신설학교가 사할린 학생들의 입학에 기다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의 교육기관들이 '교육'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된 모든 학교들은 1교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달네에 마을에 6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된 신설 학교는 550석을 갖추었다. 또한 주 중심 6호 중학교에 480석을 갖춘 추가 건물이 건설된 가운데 이 건물에는 초등학교생들이 사용하게 된다. 학교 본관에는 430명을 수용할 학교 식당 시설이 추가 설비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에 아동 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누가워예의 특수학교가 학생들의 입학에 기다린다. 코르사코프의 3호학교도 330명의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다. 현재 사할린에는 9개- 세웨로쿠릴스크, 쿠릴스크, 노글리키, 사흐초르스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쿠릴스크 지역 레이도위 마을, 유즈노쿠릴스크 지역 골로브니노, 티모브스크 지역 키롭스코예-지역에 교육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앞으로 26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할린주에는 유치원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올 가을에는 토마리의 일린스코예 마을에 현대적인 유치원이 건립돼 유아들을 위해 문을 연다. 오래 전부터 요청된 유치원 건립이 실현되었다. 출산율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좌석 수가 충분치 못했는데 학교에는 유치원생들을 위한 감독과 돌봄도우미 그룹이 조직되었다.

마을에 건립되는 110명을 수용할 새로운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 접근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사할린에는 앞으로 2년간 5개 유치원이 건립되는데 이는 사할린의 700명의 유치원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 시설이라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모 저 모

<물고기 섬>축제, 새로운 기획 방식으로 진행

올해 <물고기 섬> 전통 가을 미식 축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된다.

생선 박람회, 요리 경연, 활동교실, 방문객을 위한 시식 등 전통적인 요소들은 유지되는 가운데 팬데믹의 여건 속에 모스크바에서 전문가와 손님 초청은 취소되었다.

올해 축제의 사업 부분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할 사할린의 요리사와 레스토랑 운영자들로 구성된 팀들이 축제를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물고기 섬>축제에는 '돔 토르고블리(상점)' 백화점 옆 행사장에서 사할린의 생선 공급 및 가공업체들과 일반 음식점들의 박람회가 조성되며 경연 축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방문객을 위한 접대로 붉은 연어알을 넣은 대형 샌드위치와 해산물 스프가 끊임없이 제공된다.

축제의 또 한 부분은 지난해 <물고기 섬> 축제의 일환으로 처음 열려 사할린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시민들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이다. 지난해 시 요리 방송 중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전하는 주부'의 특별 요리에서 한 여성이 전통적인 가족 조리법으로 송어 요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요리 애호가들이 숯불구이 생선의 '연어를 다루는 자'대회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물고기 섬> 축제는 2015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날 기념과 맞물려 있다. 자세한 행사 프로그램은 시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축제' 항목에 공지할 예정이다.

"Остров-рыба" пройдет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Традиционный осенн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эпидобстановкой состоится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Будут сохранены традиционные элементы: рыбная ярмарка, кулинарный конкурс, мастер-класс, угощение для гостей.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пришлось отказаться от участия приглашенных экспертов и гостей из Москвы. В этом году деловую часть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х шеф-пов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которым есть чем удивить и порадовать наших горожан.

Старт фестивалю "Остров-рыба" дадут 5 сентября. На торговой площадке у "Дома торговли" состоится ярмарка от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и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комп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Здесь пройдет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конкурсами. Непременным атрибутом останется угощение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 гигантский бутерброд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и суп с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Еще одной частью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кулинарный конкурс для горожан, впервые состоявшийся в рамках "Острова-рыб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вызвавши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жителей. Напомним, тогда "отчаянные домохозяй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одной из кулинарных студий города готовили блюда из горбуши по сво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семейным рецептам. В этот раз кулинары-любители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в конкурсе "Укротитель лосося"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рыбы на мангале.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провод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015 года и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города. Подр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бытия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на странице фестива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주 도서관,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에 대한 전시회 마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기념하여 '대조국전쟁의 마지막 총성'이라는 향토 전시회가 8월 10일(월)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 홀에서 열렸다.

전시품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사건들에 대해 얘기해주는 문서들,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 지도, 1945년8월-9월 '소벡스키 사할린'신문 발행, 1945년9월3일자 발행 '프라브다' 신문에 실린 강제이주에 대해 스탈린을 향한 호소문, 전시회에 출품된 책들은 관광객들에게 소비에트 영웅들을 포함한 전투 참가자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이 출판물들은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 향토부 서고에 있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945년 8월-9월 사할린과 쿠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들을 알려면 '고향 섬을 위한 전투'라는 협력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시회는 8월 10일(월) 9월 11일(금)까지 열린다고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 측이 밝혔다.

(8면에 계속)

파라무쉬르에 생선 가공공장 가동

세웨로쿠틸스크에 새로운 생선 가공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생선 시설은 투자 할당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생선살, 대구알과 대구간, 손질된 가자미, 광어, 나와가, 마크루루스(줄비늘치) 등 신선한 냉동 생선 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루 생산량으로 150톤의 생선 원료를 가공하고 있다. 생산 라인은 수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독일의 바아데르(BAADER)사의 가장 최신 설비 기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에 일차적으로 생산력 증대와 부가가치가 높은 종류별 제품 확대 가능성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업자와 설비공, 장비 정비공 조달 구성에 일정 조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극동개발부와 연방 수산청, 러시아 소비자보호 감독청, 사할린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알리아드' 회사 사장 막심 빌리소브가 말했다.

이 공장은 신선한 냉동 생선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선가루와 생선기름 부산물 생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덴마크 '외스터가르트 A/S' 기업의 최신 생선가루 생산 설비는 하루에 60톤의 생선 원료를 가공할 수 있다.

어류 부문의 기업들은 세웨로쿠틸스크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가운데 약 70%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산 자체 수익의 일부를 공급하고 있다.

일제 사할린 강제동원 실종 한인 피해자 행방 밝혀질까 러 정부 최근 확인조사 나서...한국 외교공관에 협조 요청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령이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생사가 불투명한 한인들의 행방이 드러날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일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실종된 한인 25명을 찾아달라며 유엔(UN) 강제실종위킹그룹(WGEID)에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가 현장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인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사할린주(州) 지방정부는 일제 점령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실종된 한인들의 이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출장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연합뉴스에 "지난달 사할린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강제동원됐다가 실종된 한인들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 소장은 "현재 사할린 지방정부가 현지 고문서 보관소에서 실종된 분들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한러시아대사관 "러·한, 광복절 기념해 새로운 전기 마련할 것"

"광복절, 우리 민족이 맞서 싸운 역사 떠올리게 해"

주한러시아대사관이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발표한 기고문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일본 군국주의를 격파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자유를 선사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는지에 대해 상기하고자 한다"며 "소련군이 한민족을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소련의 대일본 선전포고는 알타 및 포츠담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사항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며 "대일 선전포고를 통해 소련은 동맹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피력했고, 이는 같은 연합국이면서 '제2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를 수년 동안 미루는 데 급급했던 미국과 영국과는 차별화된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바이칼 전선과 소·몽 인민혁명연합군의 성과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면서 "소련군의 진군을 막아보려는 적군의 모든 반격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상기했다.

대사관은 또 "한반도 영토 내에서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던 군대는 오직 소련의 제25 군과 태평양함대뿐이었다. 소련이 이 전투에서 얻은 인명 손실은 1500명의 사망자를 포함 총 4500명이었다"며 "미군도 기타 그 어떤 다른 국가의 군대도 한반도 해방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부대가 한반도에 처음 상륙한 것은 1945년 9월 8일로 이미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한 후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 소련군이 수행한 역할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 주민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고, 이들은 소련의 군지휘관들에게 감사의 서한과 축전을 보내곤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련의 대일전은 정의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며 "우선 소련의 대일전으로 역내 많은 민족들이 수십년 동안의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사관은 끝으로 "소련 지도부와 군사 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데 기여했고, 2차 세계 대전의 조속한 종식에 이바지했다"고 거듭 전했다.

(아주경제신문)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칠면조의 힘

아버지는 취미로 새를 키웠다. 마당 넓은 집에 작은 방만한 새장을 여러 개 만들고 새들로 가득 채웠다. 칠면조, 공작, 백공작, 공작 비둘기, 거위, 백한, 금계, 은계, 당닭, 호루조, 원앙, 백조, 일본꿩, 오골계, 싸움닭,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다.

동네 개들에게는 우리집이 천국처럼 보였을 것이다. 틈만 나면 새를 노리는 개들 때문에 아버지는 칠면조와 거위를 한 쌍씩 마당에 풀어 놓았다. 타조를 키울 수 있었다면 타조가 마당을 지켰을지 모른다.

칠면조와 거위는 마당의 주인이 되었다. 개들도 네 마리의 공격은 당해내지 못했다. 마당의 지배자가 된 새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나머지 우습게 여겼다. 나만 보면 부모의 원수를 만난 듯 달려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면 대문을 열고 한옥집 마루까지 전력질주를 해야 했다.

타협을 하고 싶어서 사료도 더 주고 송사리도 잡아다 주었지만 새들의 안하무인은 도를 넘어섰다. 특히 수컷 칠면조가 주둥자였다. 딱 벌어진 가슴에 털이 나고 얼굴도 우락부락해서 칠면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사람답게 머리를 썼다. 개만큼 많이 먹고 개만큼 똥을 싸대는 칠면조 때문에 화난 엄마를 구슬려 학교에 칠면조를 기증하게 꾸민 것이다. 새를 아끼지만 그보다는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었던 아버지가 칠면조를 학교에 전달했다.

칠면조 한 쌍이 사라지자 거위들은 기가 꺾였다. 승리자가 된 나는 새장에 갇혀 기가 죽었을 칠면조를 놀리러 학교에 갔다. 그런데 새장이 텅 비어 있었다.

칠면조를 찾으러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배구대회 출전을 위해 맹연습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을 만났다. 선생님들은 내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 전해 달라고, 배구대회에 우승하면 모두 부모님 덕분이라고.

선생님들을 따라 가보니 숙직실 커다란 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한 여름 배구 연습에 힘이 빠졌던 선생님들은 칠면조 배숙을 배불리 먹고 죽까지 끓여 먹었다. 나도 곁에서 칠면조 고기를 얻어먹었다. 칠면조가 약간 불쌍했지만 맛은 있었다.

힘이 난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를 줄줄이 이기고 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역시 칠면조의 힘은 대단했다.

광주에서 김남중

광복 75주년 재일동포 특집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개최

- 8월 15일 17시 30분 KBS 1TV 방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재일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는 특집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를 개최한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6.25전쟁, 산업화와 IMF 극복 등 조국의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 서 헌신했던 재일동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애국의 마음과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콘서트를 주관하는 KBS는 8.15 광복절 방송에 걸맞은 웅장한 세트 구현을 통해 다양한 테마가 있는 다뤄적 영상구성과 프레젠테이션, 대규모 무대로 입체감 있게 재일동포를 조명하여 감동을 더할 계획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누구보다 조국을 위해 앞장섰던 재일동포들의 역사를 통해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고,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8.15 광복 75주년 특집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에는 배우 박성웅, 가수 인순이, 박정현, 김호중, 풀킴, 재일동포 국악인 민영지 등이 출연하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오는 13일 무관중 녹화로 진행되고 15일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55분까지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MOU 체결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과 8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전문위원, 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조용기 부원장, 이미경 기획조정본부장, 한해정 교육과정·교과서본부장, 장경숙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제고를 위한 공

동 노력, ▲재외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연수·현장조사·컨설팅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 이해 관련 교육자료와 연구정보 교류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에서 재외동포 교육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국외적으로는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ЭТО БЫЛО НЕРЕАЛЬНО КРУТО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с 3 по 8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молоде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ки лагеря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прошедшей смене.

Заметки волонтера

На календаре уже август и мои каникулы прошли, думала я, переворачивая календарь. Но работа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лагере" волонтером обернулась для меня не только хорошей практикой, но и фейерверком новых эмоций и впечатлений.

Но, обо всем по порядку.

Конечно, я много слышала об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но была настроена довольно скептически,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у меня не большая, как я буду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ложится ли у меня с ним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А команда наставников? Как они будут относиться ко мне? Так я переживала, до самой первой минуты открытия.

И вот,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сь, всем раздали футболки, бейджи, всем замерили температуру и обработали руки.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и... каждый день стал, как картинка в калейдоскопе. Занятия сменяются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игры и смех, шутки, совместные выезды! Как здорово, что я здесь! Глядя на наставников, понимаю, что учитель - это призвание. Любить то дело, которое выполняешь, любить тех, кто окружает тебя, учить не навязчиво, рассказ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о не просто факты, история оживала и уже была не просто рассказом, а становилась частью нас самих. Как можно 24 часа быть на работе?

Раньше всех проснуться, позже всех лечь спать. И не одного слова об усталости.

5 дней лагеря пролетели незаметно. Пора прощаться, слезы, обнимашки, обещания встретиться всем вместе!

Моя страница в инстаграме пестрит фотографиями!

Все получилось!

Опыт, который я получила, конечно мне поможет в дальнейшем!

Кем мне нравится быть больше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о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 участником, но теперь только - волонтером!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таких крутых STAFFов - это здорово! Спасибо, вы - настоящие НАСТАВНИКИ!



Пе Жанет,
17 лет, волонтер



Директор лагеря Анжела Анатольевна П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недавно я был в корейск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лагере и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Как только я приехал, я сразу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многими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С первого дня программа лагеря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веселой и интересной. Я много узнал про своих предков, и корейцев вообще, так ещё и знатно повеселил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этих 5 прекрасных дней нас сопровождали наши "СТАФФЫ".

STAFF Анжела - наш директор,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она была мне как мама. Постоянно заботилась о том, пое-ли ли мы, все ли у нас хорошо и т.д.) SATFF Евгения - классная, заботливая и мудрая женщина, сказала её называть "Тигра Львовна". Преподаёт корейский, рассказывала про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и всякие истории из её долгой жизни)) STAFF Сергей - какой-то большой начальник, но я не запомнил, очень строгий и серьёзный дядька)) Но для кого-то нежный... Заставлял нас все делать по 100 раз). Зато научил нас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манерам! Буду помнить всю жизнь)). STAFF Владимир - очень добрый, отзывчивый и весёлый мужчина с классной причёской между прочим! У него много талантов и один из них - это то, что он полиглот)). Ну, и конечно, самый весёлый и сильный - STAFF Александр! Мой тёзка. Очень позитивный смешной человек. Без него было бы очень скучно. Каждую сложность он разбавлял своим поведением и шутками))). STAFF Жанет - самая классная, отзывчивая и весёлая девушка, которую я знаю!! Много смеялась и общалась со всеми нами!! Всегда на одной волне с нами, даже в последнюю ночь до 5 утра сидели и болтали с ней)) Жанет - ты очень клёвая наставница!!

ОЧЕНЬ СИЛЬНО БУДУ ПО ВАМ ВСЕМ СКУЧАТЬ)

Надеюсь ещё раз там побывать в сентябре!!!

Советую всем, ведь это просто незабываемый опыт и много новых знакомств и друзей!!!

А ещё кормят вкусно, гы))

Корейский лагерь - это море эмоций и впечатлений, его нельзя описать словами. Это реально крутые наставники, педагоги и стаффы, которые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всем понравились. А за 5 дней стали очень близки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относились к нам со всей любовью, как к родным детям. Корейский лагерь - это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и друзья. У нас не было такого, чтоб мы сидели и ничего не делали или нам было скучно, мы всегда чем-то занимались, куда-то ездили. Нас возили на очень много разных и интересных экскур-



Ким Александр,
14 лет

сий 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Кормили корейской вкусной едой, а ещё водили в рестораны, где мы ели вилкой русскую пищу... Всё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было круто и интерес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нём можно вечно!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Мои впечатления о лагере... Я узнал много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обычной жизни меня окружают корейцы (в основном родственники), а благодаря лагерю я приобрёл много знакомых корейцев и,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е общение не прекратится.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в лагере. Стаффа Владимира я, оказыва-ется, научила кататься на коньках без коньков. Стаффа Александра я достала вопросами. Стаффа Сергея я боюсь: он слишком серьёзный. Стаффа Жанет я обожаю: самая классная. Стаффа Анжелу я тоже обожаю: она прикольная, хоть и директор. Стаффа Евгению обожаю в том числе.

Мне все и всё понравилось. Очень всех люблю и по всем безумно скучаю!

Я узнала, что корейцы были в плену у японцев (если будут ошибки, извиняюсь), им сообщили, что скоро за ними придет корабль, они пришли именно на это место (Корсаков), они ждали 3 года, но их никто не забрал. И в честь этого поставили памятни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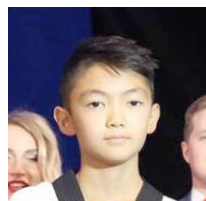
Узнала, что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перед тем, как сесть покушать 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кушал.

Узнала, как говорить спасибо и так далее. Научилась делать оригами и кимбаб.

Это самый лучший лагерь в моей жизни! Ещё хочу!

Я провела эту неделю в окружении самых удивительных люд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наставников за ваши нервы и терпение. Также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Мне вс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это был интересный опыт. Я завела много новых знакомств,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круто.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программы были отлично подготовлены, и на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скучать.

Спасибо, что кормили нас вкусной едой и водили по разным ресторанам и интересным местам. За одну неделю мы стали друг другу ближе, чем семья. Спасибо вам за это!



Ли Максим,
13 лет



Чун София,
13 лет



Пак Ди Ён,
15 лет

Этот лагерь помог мне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с головой». Если раньше для меня «корейка» просто была моей национальностью, то сейчас я вкладываю в это слово особый смысл. Я рада была изуч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и очень круто, что делала это не одна. Со мной рядом были реально крутые ребята,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чем-то мне запомнился.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всем Стаф-фам, которые были рядом и терпели наше поведение.

Смех, интерес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усная еда и длинные очереди в ванную - вот так я могу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этот лагерь. И могу заверить, что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также не упущу шанса попасть туда!

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 лагере...

Трудно описать это словами, это было невероятно круто.

Когда я только собиралась ехать, я думала, что за 5 дней не может быть чего-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го, что я ни с кем не смогу подружиться.

Но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сразу ощутила такую атмосферу... вокруг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За эту неделю у меня накопилось много впечатлений и эмоций.

По друзьям и нашим наставникам сразу начала тосковать, не хватает того окружения...

Этот лагерь стал моей второй семьей!

Узнала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о традициях в Корее. Все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знаниями.

Узнала неск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почувствовала настоящее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Ким Валерия,
15 лет



Ра Карина,
14 лет

Уважаемая редакция, хотим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лице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Сун Ок, молодё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лице председателя Ли Сергея, а также лично Пе Анжелы Анатольевны и всей команде наставников: Ли Евгении Михайловны, Ли Сергею, О Владимиру, Ким Александру и Пе Жанет.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любовь и настоящий корейский дух, который вложили в сердца наших детей за эти 5 дней программы!

Желаем вам всем новых высот, энергии, позитива еще на много программ!

С огром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руппа родителей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2020"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ласти КНДР направили войска в районы наводнений

Власти КНДР направили войска в районы,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наводнений. Как сообщ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водят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ряде уездов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Пукто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йонах побы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он дал указание направить в пострадавшие районы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население предметами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временным жильём. По дан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иноптиков, в ряде районов провинций Хванхэ-Пукто и Канвондо с начала августа выпало порядка 800 мм осадков, тогда как среднегодовое количество осадков составляет в этих районах около 960 мм.

В 2020 году РК может занять 9-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ВВП

По итогам 2020 года РК может занять девято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стран по объёму валов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продукта (ВВП).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отчёте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Эксперты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агают, что номинальный ВВП страны сократится на 1,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и составит по итогам года примерно 1 трлн 54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ВП включает общую стоимость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произведённых в стране за определённый перио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К занимала 12-е место по объёму ВВП, но в этом году она, как ожидается, обойдёт Бразилию, Канаду и Россию. По прогнозам, в этом году в Канаде произойдё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пад на 7,5%, в России – на 14,1%, в Бразилии – на 3,9%. Несмотря на снижение номинального ВВП на 5,7%, США возглавят списо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Китай. Далее в списке следуют Япония, Германия, Инд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Франция и Италия.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ять секретар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ушли в отставку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о Ён Мин и пять старших секретаре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али 7 августа прошения об отставке.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Кан Мин Сок,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Ён Мин, секретарь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Кан Ги Чжон,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Юн До Хан,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Ким Чжо Вон,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им Го Сон, по кадровым вопросам Ким Вэ Сук взяли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не дал прямого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включает ли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неудачные у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держиванию роста цен на жильё. Он добавил, что о реак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ока говорить рано.

Семь регионов РК объя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7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бъявить специальн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город Ансо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уезд Чхольв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города Чэчхон и Чхунчжу, а также уезд Ым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города Чхонан и Аса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Данные регионы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з бюджета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чьи дома разруш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воднения, а также фермеры, чьим хозяйствам нанесён ущерб, получат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и различные льготы. Поскольку оценка ущерба, нанесённого регионам, не завершена, возможно расширение списка специальных зон бедствия.

Во дворце Чхандоккун пройдёт программа «Прогулка под лунным светом»

Управление охран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товит очередную программу ночных экскурсий по дворцу Чхандоккун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рогулка под лунным светом». О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период с 13 августа по 13 сентября по 4 дня в неделю – с четверга по воскресенье. Ранее под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чиналась уже с мая, но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она была закрыта через день после начал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Участник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ида могут погулять по дворцу Чхандоккун, подсвечивая путь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фонарями - чхонсачхорон.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ки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полюбоваться дворцовыми зданиями, освещёнными лунным светом и прожекторами, и послушать выступления исполнителей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С учётом ситуации с пандемией в ночной прогулк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не более 20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7 августа началась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в интернете.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15 августа – особый день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т день корейцы празднуют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Японии, причем это освобождение считается и освобождением Сахалина, где проживали корейцы,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уда они стремились вернуться.

При всем этом, мало кто задумывается о деталях тех событий,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ых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такое желан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Считается, что 15 августа – сакральный день, когда японский император объявил о поражении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принятии условий Потсда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союзников по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Хотя на самом деле Япония уведомила США о принятии условий 14 августа, а 15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днако не все япо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и войсковые части получили приказ о капитуляции – часть из них продолжа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1945 г. К 15 августа этот «неформ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был несколько искусственно притянут поздне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15 август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 это праздник сбора урожая (чусок), то есть имеет сакральный смысл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а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а официально провозглашена 15 августа 1948 г. 15 августа 1945 г. же никаких особых знаковых событий не происходил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окончены не были, а самым значимым днем для того периода и тех событий было все-таки 2 сентября 1945 г. – официальное подпис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Японии и победителей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США, СССР,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других) Акта о капитуляции, который и завершил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обычный читатель редко когда связывает воедино операции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хотелось бы в серии дальнейших очерков, посвященных этим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ям, напомнить об истории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вгуста–сентября 1945 г.,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ко-



рейцы и обрели долгождан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июне, сократилось на 97,5%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 июне страну посетили 36.943 иностранца, что на 97,5% мен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з США прибыли 9.717 человек, что на 90,8% меньше, чем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Гостей из Китая было 5.051 человек, что на 98,9% меньше. Количество прибывших из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Гонконга и Тайланда сократ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на 9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Обще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о 2 млн 140 тыс. человек, сократившись на 74,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Актеры и съёмочная группа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приглашены в AMPAS

Организатор и основатель премии «Оскар», Академ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х искусств и наук США (AMPAS) пригласила в свои ряды 819 челове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главные актёры и члены съёмочной групп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Среди приглашённых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ктёры Чхве У Сик, Чан Хе Чжин, Чо Ё Чжон, Ли Чжон Ын и Пак Со Дам. Из числа членов съёмочной группы в список попали художник по костюмам, редактор фильма, режиссёр-композитор, продюсер, художник-постановщик, звукорежиссёр, сценарист и другие. Режиссёр фильма Пон Чжун Хо и актёр, сыгравший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Сон Ган Хо являются членами Академии с 2015 года. Данный статус даёт право голосовать за номинантов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ядах организаци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40 южнокорейцев.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упнейший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 главный ингредиент «крабовых палочек»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приобрел технику,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фарша «сурими». Первую парт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ждут в сентябре.

— Группа наших компаний расширяет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выпуску кормовой муки и рыбьего жира. Закупили большой завод, скоро он к нам прибудет. Мы уже ведем стройку здания под него. Будем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до 500 тонн сырца в сутки,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филиала предприятия Олег Мазур.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2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позволило возместить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Поддержка областному предприятию осуществл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на 2019-2025 годы».

—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островах. Торговая марка предприятия известна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 рассказала 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ся Давыдова. — Увеличение общего вылова и переработк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редприятием позволило создать на Шикотане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увеличить поступление налогов в бюджет и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поставляемой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Напомним,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запустили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Он построен недалеко от причала, к которому подходят суда. Подача на конвейер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помощью вакуумного насоса — рыбопровод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за считанные часы поместить свежее выловл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в рефрижератор.

Предприятие способно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1000 тонн сырьев в сутки. Выпуск рыбьего жира и удобрений дел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безотходным. В ассортименте — мороженные минтай, треска, камбала, навага, скумбрия, сардина, палтус, кальмар, а также мука рыбная кормовая. Консервный цех производит ассорти деликатесное, печень трески и минтая.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одукции предприятия уходит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Сегодня на заводе трудятся более 350 сотрудников. Они проживают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м общежитии. Им доступен спортзал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Для рабочих организовано трехразовое питание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 мен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о 50 приемных семей для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инвалидов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егионе с 2015 года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комплексн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емны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заботятся о пенсионерах и инвалидах, выделяется ежемесячна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от 15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 да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иемная семья является хорошей альтернативой домам престарелых или инвалидов. Здесь старики могут ощутить себя частью семейства. О них заботятся: покупают продукты, помогают в уборке, готовят обеды, — поясн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ия Автухова.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иемных семей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инвалидов созда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талья Кукушкина приняла в свою семью отца лучшей подруги детства. Виталий Егоров остался в городе один, женщина предложила ему помощь в уходе.

— Прогулки, покупки, решение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 это все она делает. К окулисту собираемся, Наташа поможет мне талончик взять. Я могу назвать ее флагманом по-морскому, ну или ведущей, если по - авиационному, — тепло отозвался о члене своей приемной семьи Вита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приемной семье, а также желающим создать такую семью,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рган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апомним, что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ключена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Демография».

Стартовала на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форума «Добр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12-13 сентябр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лидеры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олонтеры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ых ресурсных центров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Ф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урирующих доброволь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ов пройдут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Впервые Окружные форумы добровольцев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и работа в экспертных сессиях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ов, прошедшим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Те, кто не прошел этап отбора, сможет стать зрителем форума и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записи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граммы форумов.

Окружной форум «Добр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это встречи с экспертами в сфере волонтерства, онлайн-лектории,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викторин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ет каждый волонтер России: <https://okrug.dobro.ru/>. Отбороч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28 августа. От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мотивационное письмо с ответом на вопрос «Зачем я хочу участвов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VI фестиваль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8 августа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Нивхи, уйльта, эвенки и нанайцы представили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наряды, издели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презентации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Я поздравляю нас всех с началом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егодня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лучшие образцы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омыслов — это достояни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Только тот народ, который сохраняет память о своем прошлом, способен построить будущее. Желаю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хорош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ткрыли мероприятие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области — ансамбли «Мэнгумэ илга» (Поронайск) и «Люди Ых ми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луб «Нивхинка» (Ноглики), театр «DREVO»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акже вокальный дуэт бурятского землячества «Байк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рдц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 которой можно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остров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К примеру, Елена Очан из сел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шила куклу, одетую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ряд. На спине у неё изображен нивхский орнамент, который служил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носа оберегом. По словам островитянки, у других этносов такие рисунки в оформлении тыльной стороны одежды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Элементы изделия выполнены из натур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всю работу ушло 4 месяца.

— Еще одна особенность игрушки — накосница. Конечно, сейчас это украшение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носит, однако у наших предков оно было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 Как можно понять из названия, девушки вплетали его в волосы, длина которых могла достигать нескольких метров. Причем накосница выполняла разные функции. Могла,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мейном положении обладательницы,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Очан.

А жительница Ноглик Валерия Осип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выставке картину из замши и рыбьей кожи (горбуша и кунджа). На создание силуэтной композиции её вдохновила кни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автора Николая Соловьева.

— В одной из работ писателя я нашла очень романтический сюжет,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любви нивхи и тунгуски. Эту трога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я переложила в картину «Совет молодоженам», — рассказала островитянка.

Вдохновение из книг также черпает другой житель села Ноглики — Вадим Левкун. На страница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стровитянин находит изображ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посуды. Чтобы сделать их точную копию, использует разные породы деревьев. Так, для ритуальных ложек луч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береза,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изделия получают особенно крепкими.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скольку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кормления медведей.

—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делом с 2009 года. Научился всему сам. Еще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страстил к ремеслу. Дочка уже 2 года в выставках участвует. Сегодня она тоже здесь, — рассказал Вадим Левкун.

Также среди работ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 изделия из бисера, меха нерпы и бересты, вышивка, одежда, а также сумочки из рыбьей кожи.

— Пришла на фестиваль со своей дочкой. Мы остались в восторге. Будто сели в машину времени и унеслись на несколько столетий назад. Наряды, украшения, обереги — у каждого предмета своя энергия и духовн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Например, я прикупила себе браслет от злых сил.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5 минут все дурные мысли вылетели из головы.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ботает,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Сорокина.

VI фестиваль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продолжился 9 августа. В 11:00 на площадке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лась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уроки рукоделия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умельцев. В 14:00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Керамический сосуд с отпечатками морского гребешка». За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и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оялось 9 августа в 16.00.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портивная эли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собрались атлеты, тренеры, судьи, спортивные журналисты, мецена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тско-юношеских школ и федераций. Призеров определили в 12 номинациях. Судьи оцени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конкурсантов, которых они достигли в течение 2019 года.

Конкурсант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 Мы гордимся вашими успехами. Вы являетесь достойным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стающих поколений,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пред. —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 на островах строятся крупн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проводя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обновля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в раз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ет. 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которые с ранних лет привыкли достигать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ставить перед собой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способны на успехи и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жизни — в бизнесе, экономике 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Перед начал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бывш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Татьяну Быкову, которая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ла ровно год назад.

Лучши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в сфер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ст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спортивная федераци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областная федерация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Лучшим спортивным судьей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знан Геннадий Федорян (направление —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Спортивным журналистом, одержавшим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телесюжет или программа о спорте», ст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елекомпании ОТВ Сергей Суханов.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публикация в Интернет-СМИ» награду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ила Анастасия Кузнецова из пресс-службы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альму первенств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тренер» по спортив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включенным в программ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категории «Мастерство» завоевал тренер по каратэ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Леонид Ким. В категории «Масовость»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Елена Елохина, тренер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Лучшим наставником по игров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изнана тренер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волейболу Марина Захарова. Среди тренеров адаптив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лидировала Ольга Желтова из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Лучшим тренером по спортив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не включенным в программ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стал Евгений Борозна, тренер по мас-рестлингу спортшколы Поронайска.

Лучшей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портивного резерва среди СШОР выбрали школу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Среди спортшкол лидировала СШ по волейболу.

Лучшей спортивной командой стала «Арена Мастер — 2008» школы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ильнейшие ветераны спорта — победитель Летнего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на дистанции 400 метров) Лариса Жук и призер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среди мастеров (ветеранов) Александр Коротченко.

Лучш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портивных дисциплин, включенных в программ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стала сноубордистка София Надыршина. А среди атлетов юношеского, юниорского и молодежного возрастов — борец Анастасия Парохина.

Звания лучш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портивной дисциплины, не включенной в программ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удостоен саватист Алексей Логинов. Среди конкурсантов юношеского, юниорского и молодежного возрастов победу забрали черлидеры Арина Юн и Яна Кривобокова.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казал кандидат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Ф по тхэквондо Игорь Ким.

В номинации «Меценат спорта»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а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сред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еодоление» высшей награды удостоилась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РСФСР Э.М. Комнацкого.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постановка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предприятий» наградили компанию «Дальморнефтегеофизик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вручены почетные награ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егиона, знаки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ая категория «Спортивный судь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атегории», а также награждены победители Спартакиады на призы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за 2019 год.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одготовил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выставку об окончан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раеведческая выставка "Последние залпы Великой войны", посвящённая 7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чала работу в фой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10 августа.

Экспози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окументы,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 событиях конц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арт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ю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убликации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за август – сентябрь 1945 года, а также номер газеты "Правда" за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с обращением Сталина к населению страны.

Книг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выставке, расскажут посетителям об участниках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том числе о героя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здания находятся в фонде отдела краеведения СахОУНБ и доступны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обытиях, происходивши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августе – сентябре 1945 год, можно найти на корпоративном электронном ресурсе "Бои з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10 августа по 11 сент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대한민국, 5G 가입자 700만 명 돌파

6 월 말 기준 대한민국 5 세대 5G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700 만 37 만명에 이르고 있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 따르면 이는 6,900 만 명 모바일 가입자의 약 10 % 에 해당된다. 5G통신망을 고려한 새로운 앱들의 등장으로 올해 말까지 5G가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4세대의 4G 통신이 가장 평준화되어 있어 가입자는 5500만명으로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80%에 해당된다. 5G 가입자 수 중 SK텔레콤이 335만 명으로 가장 많고, KT는 224만 명, LG 유플러스는 178만 명이다.

Число абонентов 5G превысило в РК 7 млн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июня, число абонентов услуг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5G составил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7 млн 370 тыс.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порядка 10% из 69 млн 600 тыс. абонент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подписчиков 5G увеличится, учитывая появление новых гаджетов,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эту сеть. Между тем,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остаётся связь четвёртого поколения 4G, на которую подписаны 55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80% абонент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Больше всего абонентов 5G у оператора SK Telecom – 3 млн 350 тыс. За ним следуют KT – 2 млн 240 тыс. и LG Uplus – 1 млн 780 тыс.

티몹스코예 마을에서 쌍둥이쇼 준비 중

쌍둥이쇼 <두 개의 물방울처럼>이 9월 6일 티몹스코예의 중앙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센터의 1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 지역 행정부와 <유빌레이니> 지역 중앙문화회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세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경연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동일한 의상을 고안해 입어야 하고 준비된 참가자들은 말하기, 시낭독, 노래, 춤, 기타 등등을 보여주며 자신들을 소개한다. 이 쇼는 오후 6시에 시작된다.

В Тымовском готовятся к проведению шоу близнецов

Шоу близнецов "Как две капли воды" пройдет 6 сентября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в Тымовском.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частью празднования 140-летия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 информации, размещенной в официальных пабликах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центрального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Юбилейный",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стать близнецы, двойняшки и тройняшк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думать одинаковые ориги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если конкурсанты подготовят визитные карточки – речевку,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есню, танец или что-то другое.

Начало шо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8 часов.

(사할린주, 러시아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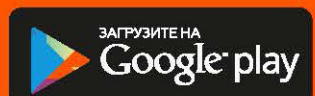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